학문적으로 큰 업적을 내고 싶은 대학생은 대학생활에서 가능한 한 실수를 많이 저질러야 하며, 지도교수로부터 가능한 한 지적을 많이 받아야 한다. 젊은 사원들은 신입사원시절에 사소한 실수를 많이 저지를 것을 업무목표로 삼아야 한다. 얼마나 좋은가? 실험을 잘못했다고 때리는 교수를 보았는가?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다 해서 신입사원을 파면시키는 경영자를 보았는가?

만일 교수, 경영자가 실수를 용납하지 않거나, 실수내용을 지적하지도 않고, 시정해 주지도 않는다면,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다.

여의도광장에서 자전거를 배우는 장면을 보며 얻은 교훈은 "크게 발전하고 싶으면 많은 실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4. 프로야구이론

프로야구 타격왕의 타율은 3할 5푼이다

일전에 스포츠신문에 집계된 국내 프로야구 타격 30걸의 타율을 보니 타격 1위는 3할 5푼이었고, 타격 30위는 2할 3푼이었다. 이 기사를 보며 일전에 참석하였던 위원회의 보고가 생각났다. 그 위원회는 정부추진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자리였는데,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약 720개의 사업 중에 640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프로야구선수로 치면 우리 정부는 타율이 9할대인 셈이다.

■ 타율이 9할인 야구선수를 본 적이 있는가?

그러나 프로야구에서 9할대의 타율이 가능하겠는가?

만일 모든 타자가 9할대의 타율을 보인다면 야구는 1회전 공격을 채 끝내지 못하고 중계방송 시간이 끝날 것이다. 모든 타자가 9할대로 안타를 치고 나가니 1회 초 공격이 어느 시절에 끝나겠는가?

성공률이 90퍼센트인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와 연구원들은 흥이 나지 않을 것이다. 90퍼센트가 성공할 터인데 흥분, 긴장, 초조감이 전혀 없을 것 아닌가. 성공하여도 큰 감흥이 없을 것이다. 만일 실패하더라도 혹시 재수 탓으로 돌리지 않겠는가.

필자가 공학연구소 소장으로 일할 때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가 주관한 산학협동 연구의 타율을 분석해 본 경험이 있다. 선배 교수님들이 행한 연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타율을 따져 보니 98퍼센트였다. 어떻게 연구개발의 98퍼센트가 성공하겠는가?

아무래도 믿을 수 없어서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았다. 즉, 산학협동 연구 결과 그 기술이 해외에 수출되어 외화수입이 있었거나, 기업에 적용되어 큰 수익을 가져왔거나, 연구과정중에 새로운 연구과제가 파

악되어 기업의 요청으로 연구 재계약이 된 것만을 따져 보니 전체 연구의 22퍼센트쯤 되었다. 공학연구소의 타율은 몇 퍼센트인가? 22퍼센트 쪽이 맞을 것이다.

프로야구선수는 안타를 치지 못한 경우를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 프로야구선수는 타석에 나가기 전에 스트레스가 쌓일 것이다. 안타를 치지 못하면 동료, 코치, 감독, 팬들에게 얼마나 미안한 일인가? 상대방 응원팀으로부터는 어떤 심한 야유를 받을 것인가? 그러나 2~3할의 성공확률을 보고 담담하게 타석에 나가는 것이다.

프로야구선수들이 이러한 마음고생을 감수하는 반면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하이터치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주 듣던 말이 있다. "위험부담이 있으니 좀 더 시장이 성숙되기를 기다리자"라는 것이다.

국가간의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의 발표문에서 "사태의 추이를 보고 적극 대처하겠다" 혹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안타를 칠 보장이 없으니 좀더 두고 보다가 타석에 나가겠다고 버티는 프로야구선수와 같지 않은가? 그런 야구선수도

있는가?

■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은 멀리하자

기업에서 존경받는 경영진 중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 사람이 있다. 아마 확실한 일만 골라서 하고 꼼꼼하게 추진하여서 그런 별명을 얻었을 것이다.

이 임원은 100퍼센트 확신이 없는 일은 두드릴 것이다. 두드릴 다리가 없는 계곡은 아예 근처에도 안 갈 것이며, 로프로 만든 임시가교에는 위험표지를 붙여 놓을 것이다. 돌로 된 다리는 두드려 볼 것이다. 손으로 두드려 끄떡없으면 발로 차볼 것이다. 그래도 괜찮으면 이윽고 중장비를 가져와 부술 것이다. 그리고 감탄할 것이다. "아! 건너갔더라면 큰일날 뻔했잖아!" 프로야구선수가 안타를 치기 위해 상대방팀의 감독, 코치, 투수, 수비수, 응원관중과 협의하여 안타를 보장받고 난 후에야 타석에 나가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를 하다 보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기업이 앞으로 큰 발전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야구선수가 안타를 치지 못하면 더욱 연습을 열심히 하듯이, 기업도 실패경험에서 발전의 기반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실패가 별로 없으니 발전도 없을 것 아닌가.

결국 세계 열강과 벌이는 국가경쟁력, 세계 초일류기업과 겨루는 시장경쟁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출전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추이를 보고 대처하고, 동정을 예의 주시하고, 결과가 잘못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출전을 안하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프로야구선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다. 정부는 추진하는 사업마다 성공하였다는 부처를 집중 감사하여야 한다. 기업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임원을 적극 격려하여야 한다. 실패가 없고, 한점의 티도 없는 임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심각히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일은 아예 참여도 하지 말아야 한다. 참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해 봤자 별 볼일이 없기 때문이다.